

1. 종교다원주의 배경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61호
12월 5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68차 총회 제18회 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법 저지

방역정치 극복 온전한 예배회복 기도



총회장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18회 임원회가 지난 11월 28일(목) 오전 11시 디지탈총회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조금만 방심하면 2차, 3차 확산이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상을 통해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고전 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모두가 힘들어 피로도가 쌓여가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내가 먼저 솔선하여 섬김으로 더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임원회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임 청원, 교회주조 변경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노숙자선교위원회 지원요청 건과 필리핀 선교지 태풍피해 현황과 지원 및 기도요청 건 등을 결의하고 일부 지원금을 보내고 또 기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목양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도움 요청의 글을

게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폐지를 위해 한미음으로 기도했다.



태풍피해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에서

저는 필리핀 문발한 카시글라한 빌리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인로 선교사(필리핀지교회 부회장)입니다. 홍수 발생과 현재상황을 날짜별로 또한 단계별 복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2020년 11월 12일(목), 필리핀 문발한선교지와 이웃주민들에게는 심각한 홍수피해로 비극을 맞이한 날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비는 11월 11일(수)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했으며, 저녁 7시 수요일에 후 2, 3층은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의 대피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11월 12일(목) 새벽 3시, 갑자기 불어난 물로 1층은 190cm까지 차올랐으며 18개의 크고 작은 교실, 교부실, CDP(어린이기쁨프로그램 사무실, LHCA 학교온라인 수업시설, 식당, 부엌과 모든 방은 파손, 컴퓨터, 각종 프린터, 캐비닛과 서류, 책상, 교육용 대형TV, 벽걸이 에어컨, 자동차 4대, 발전기, 스탠드용 에어컨 1대, 긴 급식량 쌀 50kg짜리 10포대, 창고의 수많은 물품들(상세피해 파악불가)이 물에 뒤집혀가 파손되었습니다.

-직업학교 용접기들과 이온교실과 실내모든비품

-주민들 피해내용은 아직 파악 불가

-필요한 긴급구호품: 식량 물, 해열제/감기약 의복

이불과 비누 등 생필품

<11월 15일 오후 현재까지상황>

-11/12일 ~15일까지 단전, 물은 16일부터 공급(그러나 매우 약하고 더러움)

-15일까지 마을입구 150m부터 자동차 접근 불가(너무 많은 쓰레기와 흙탕물 때문)

-센터마당과 모든 방은 약 10-15cm의 흙으로 가득 하지만 청소불가

-전회통신두절, 배터리 충전불가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사항은 전염병과 피부병인데, 이미 감기와 고열증세를 보인다고 함

-목회자 로이는 비 오는 날 밤에 이웃집 지붕 위에 피신했다고 하네요

* 16일(월), 시청에서 트럭과 불도저와 인력 동원하여 센터 앞 진입로와 센터 마당에 쌓인 진흙을 일부 처리하였으나 아직 흩어지는 마당 한구석에 쌓여있으며 완전히 막아버린 하수구 청소를 위하여 소방차를 보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국에 묶여 있는 관계로 가볼 수도 없



고 마음만 답답하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 조건을 찾으며, 인내하며 아무것도 없는 교인들, 주민들과 함께 복귀해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함께 기도 로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래는 단계별 복구계획과 기도제목입니다.

문발한 시청에서 1단계 복구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1단계(청소)

1) 16일(월) 시청 트럭과 불도저 투입, 센터 진입로

개통(청소/정리)

2) 시청인력과 함께 우리 교인 CDP 출신 청년 학생

부모, 그룹별 투입, 1층 내부청소와 마당 흙 밀어내는 작업

3) 16일(월) ~17일(수), 구입한 발전기, 컴프레서와 강력물청소기로 각종 방들과 복도 상세청소

4) 날짜 미정, 마지막은 시청/사람가이 소방차 투입(마당 진흙 마무리)

하수구까지 청소하는 단계적 계획 약속

5) 청소를 물 공급은 필요에 따라 수시 지원,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와 CDP에서 시청과 함께 로이(목회자) 책임하에 실행되고 있으며 1단계 청소는 잘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2단계: 파손된 물품 수리 및 보강 CDP와 학교 온라인 수업장치를 위한 시설복구

3단계: 각종 가구 및 건물파손 공사 등입니다

2-3단계 복구에 전분기술과 재정부분이 관련인데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홍수피해지역이 속히 복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 현재 필리핀은 하루 2천여 명의 확진자 발생, 모든

외국인은 입국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이번 홍수피해 복구문제만 반드시 돌아가기 위하여 필

리핀 대통령궁과 소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기도제목>

1. 홍수피해 주민들 복구와 2차 감염과 건강위하여

2. 센터와 학교, 직업학교의 2, 3단계 복구가 원만하

게 이뤄지도록

3. 저희부부 건강과 필리핀 입국할 수 있도록 집중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첨부한 사진은 홍수 첫날, 우리 교회 3층에 대

피해 있던 교인들과 주민들이 찍은 것입니다. 초록색

지붕이 우리 직업훈련 건물이며 주변 마을도 1층 지붕

은 거의 다 수몰되고 센터 마당에 높아타가 절반 이상

잠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인로 선교사 드림

For the spread of the Gospel to the very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복음증거를 위하여...

Rev. Steve Lee (이인로 선교사)

후원계좌 : 국민 061701-04-180331 (예하성)

Phil. H 63) 2-585-5760

Phil. C 63) 917-825-2131

Kor. O 82) 10-9045-6535



‘좋은 결말이 보장된 사람’



조용목 목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시 127:1~2)

무슨 일이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결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결말이 좋으면 힘들었던 과정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면 언제나 좋은 결말을 보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좋은 결말이 도달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본문 말씀에 그 긍정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집을 짓는 자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지는 집이 창수와 바림으로 인하여 무너지면 집을 지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됩니다. 반면에 그 집이 견고히 서 있으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값진 것이 됩니다. 우리가 결말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며 방주의 재료와 규모와 건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가 다 멸절되었으나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살았습니다. 120년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말이 좋았습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에 있는 성들은 크고 견고하며, 사람들은 체력이 강대하고 강한 무기와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어서 성문만 굳게 닫고 있으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성을 파수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파수와 방비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을 한바퀴씩 돌고 칠일째는 일곱 바퀴를 돈 다음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룩하고 취득한 것을 잃지 아니하려고 온갖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문밧장이 부서져 버리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지 않으시면 멸망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최상의 결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열매를 먹음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매여 달려 다닐지 헛바퀴 돌 듯 하다 보면 어느 틈에 놓고 쇠약해지고 맙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인생이란 덧없고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무익하거나 무의미하게 되지 않습니다. 차고 깨며,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앞을 설 때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끝에는 복스러운 약속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평안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과 담담함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美 연방대법원 “코로나로 예배 제한은 위헌”

새로 임명된 배럿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 한 듯

종교의 자유 위반 원고승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1월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교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의 예배 제한은 많은 종교인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위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제재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이 5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 진보 성향의 루스 김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후 그 빈자리를 채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법관들은 공공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영역의 특별한 전문가와 책임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중이라 해도, 헌법을 제쳐두거나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정통 유대교인들이 모여 있는 보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쿠오모 주지사는 양성률이 높은 지역에 예배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의 대규모 시위로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뉴욕주 행정명령은 특히 예배 장소에 기호한 처우를 하기 때문에 제재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제재는 이전에 법원에 제출된

그 어떤 코로나19 관련 제재보다 훨씬 제한적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다른 지역에서 채택된 제재보다 훨씬 엄격하다.

또 해당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배를 재개한 이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온 가톨릭 교구나 유대인 회당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널 고쳐서 대법관은 “쿠오모 주지사가 많은 사업장들에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종교적인 장소를 다르게 대우하는 데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곳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세속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만큼 ‘필수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사실 주지사는 이에 대해 놀랄 만큼 솔직하다. 그의 판단에 있어서 세타물과 술, 여행과 필요한 물품 등은 필수적인 반면, 전통적인 종교 생활은 그렇지 않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한 차별의 한 종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들과 같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관장은 “원고에 있는 지역이 더 이상 적색이나 주황색 구역(현재 수용 인원 50% 규모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황색 구역으로 변경됨)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의 경감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에 반대하여 “자유로운 종교 생활은 가장 소중하고 경건한 헌법적 권리 중 하나”라며 “지금과 같이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종교 기관을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관련 기사를 “행복한 추수감사절!”이라는 글과 함께 트위터에 게재했다.

-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 내일을 위한 회복 세미나

한기지협, 한국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교회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이하 한기지협)는 지난 11월 10일(화) 서울 광화문 코리안호텔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오늘과 내일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국교회에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그 해법을 제시했다.

한기지협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학과 신앙, 부흥과 발전 모든 면에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다”라며, “우리는 결사의 각오로 한국교회를 살려야 한다.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세미나가 새로운 회복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회장 김진호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는 위험하다는 뜻 외에도 기회라는 뜻도 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흥기 박사(한동대 전 교수)와 박용기 목사(성경신학술원 고문)가 강사로 나서 각각 ‘현대신학사조와 오늘

교회상황’ ‘한국교회의 대안 제시’란 주제로 발제를 펼쳤다.

첫 강연에 나선 박흥기 박사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성경신학과 성경 권위의 회복을 꼽았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경을 외면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그러기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기 목사는 ‘성경신학개론’을 설명했다.

한교연, 송태섭 목사 단독 입후보

제10회 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

(사)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제10대 대표회장 후보에 송태섭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다.

한교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석 목사)는 지난 11월 19일(목) 오전 11시 전체 회의를 열고 대표회장 후보 접수를 마감했다. 이어 단독으로 입후보한 송태섭 목사의 등록 서류와 후보 등록금 및 발전기금의 납입 사항을 영수증과 통장으로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보고 송태섭 목사를 한교연 제10대 대표회장 후보로 확정했다. 한편 상임회장 후보는 11월 30일 11시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송태섭 목사는 후보 소견서에서 “첫째, 한교연이 하나 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연합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대사회 대정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주님은 세상에 화해와 중보자로 오셔서 결

혼한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데 앞장서는 한교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교연 제10대 대표회장 후보 송태섭 목사는 합신대 대학원, 한남대 목신원을 졸업하고, 현재 수원 경원교회에서 시무 중이다. 한장총 상임회장에 이어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교회연합 상임회장이다. 현재 수원남부경찰서 경무, 월드비전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한교연 제10회 총회는 오는 12월 10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새 회장에 이봉관 장로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드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1월 24일(화) 오전 11시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려, 이봉관 장로(서희건설 회장)가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철 장로(영예회장, ㈜신원그룹 회장)의 대표기도, 이배용 권사(취회장, 전 이화여대 총장)의 성경봉독, 청운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

다. 이어 제10대 회장 두상달 장로의 이임사와 제11대 회장의 취임사가 진행되었다. 신임회장 이봉관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 받은 축복을 한국교회와 복음을 위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03년 3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로 법인화를 하면서 초대회장을 맡았던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는 한국



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회장 이틀로 이봉관 장로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에는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장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회장 이봉관 장로), 한일기독교원연맹(공동회장 황우여 장로), 세계성서학원(공동회장 정용태 장로),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공동회장 김희선 장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예배는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김진표 장로와 김영진 장로(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명예회장의 격려사, 김순영 교수의 특송,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서광수 장로의 합신기도 인도, 최낙중 목사(해오름교회 원로, 서울성서회운동본부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청년목회자 언택트 사역 실천세미나’

기독 콘텐츠 및 영상, 목회전략 등 강의

예수교대한성경교회 청년부(총회장 김윤석 목사, 부장 이규 목사)가 주최하고 신촌아름다운교회(주관)가 주관한 ‘2021 청년목회자 언택트 사역 실천세미나’가 지난 11월 19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신촌 히브리스 카페에서 진행됐다.

첫째날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전교의 시간과 1차 세미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인근 숙소에서 단체 숙박 후 이튿날 2차 세미나와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일정을 마쳤다. 권순달 목사(총회 청년부 서기)의 사회로 시작된 첫째날 개회예배에서는 이철 장로(총회 청년부 위원)의 기도 후 유우열 목사(총회 청년부지역위원장)가 참석자들에게 설교를 했다.

첫째날 1차 세미나는 서재원 PD의 “가장 저렴한교회 교회사유디오 만들기” 황재찬 PD

의 “좋은 기독교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재원 PD의 “어떻게 매달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가?”로 진행됐다.

그리고 이튿날 이어진 2차 세미나는 김태훈 목사가 ‘뉴노멀 시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코로나19 시대의 목회전

략 ‘비대면 시대 목회실전 노하우-비대면 예배, 소그룹 운영 및 양육과정 소개’ 비대면 목회를 위한 미디어활용 실습-예배중계법과 Zoom을 통한 소그룹 모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의 해 청년목회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줬다.



한교봉, 전국 수해 피해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중고등학생 24명에게 총 1,620만원의 장학금 전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금년 수해로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침수되어서 길러왔던 채소가 모두 손실되었어요”

“가장인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수해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완전히 침수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학업을 마치고 싶어요”

“아버지가 미자립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금년 태풍 피해로 교회사장이 어려워졌어요”

한국교회봉사단(이사장: 정성진 목사, 한교봉)으로 접수된 장학금 신청 사연들이다. 한교봉은 11월 25일(수) 오후 4시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에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철원, 전남 곡성, 구례, 전북 남원, 경남 하동,



충남 금산, 아산, 경기도 분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24명에게 총 1,6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교봉은 해당 지역 기독교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이번 전달식에는 장학생 대표로 분산수학교등학교 3학년 이은서 학생만 참석하고 다른 학생들은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예장웨신총회, 총회장 취임 및 임원 워크숍

“웃니엘처럼 쓰임 받은 웨신총회 되자!”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지난 11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충남 공주시 우성면 소재 세종평화의 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엘리트하우스 강당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평온한 웨신총회’라는 주제로 제106회기 웨신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총회장 박정균 목사 취임식과 총회 노회 임원 워크숍을 가졌다.

1부 개회 예배는 총회 서기 황봉기 목사의 인도로 총회 회계 김복래 목사의 기도

봉독, 총회장 박정균 목사의 사 3:7~1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평온한 웨신총회’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박정균 총회장은 “한 사람 때문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웃니엘 때문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노회도 평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총회장은 이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이런 총회를 크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웃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웨신총회와 한국교회, 또한 대한민국을 살릴 이 시대의 웃니엘을 찾고 계신다며 우리가 웨신총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께 찾으시는 웃니엘이 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 부총회장 겸 총무 이종영 목사의 광고를 끝으로 중경총회장 이흥규 목사의 축도로 개회를 예배를 마쳤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단체 될 것 다짐

예총선연, 제4회 정기총회 개최

(사)대한예수교총회선교연합회(총재 강재원 목사, 상임총재 김광본 목사, 대표회장 김학필 목사)는 지난 11월 23일(월) 오전 11시 성은교회 본당 4층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안진식 목사의 사회로 총재 강재원 목사의 인사말, 이사 박천진 목사의 기도, 총무 성백은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김학필 목사의 막 16:17~18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전하자”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홍성철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필 목사는 이날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목회자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도시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문 한윤수 목사가, 남북한 복음동일을 위하여’ 이사 윤범석 목사가, ‘한국교계와 목회자를 위하여’ 공동회장 이종재 목사가, ‘(사)대한예수교총회선교연합회를 위하여’ 고문 권경희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서기 임재영 장로의 인사 및 광고, 상임총재 김광본 목사의 축도로 이어 2부 총회 회무처리는 대표회장 김학필 목사의 사회로 회원점명, 개회선언 순으로 진행되어 각부 보고를 유인물로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로 기쁨 충만하길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권점식 목사)는 지난 11월 24일(화) 오전 11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북문9길 5-4에 위치한 연양순복음교회(담임 황용식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성기찬 목사(영아진순복음교회)의 사회, 부회장 신희섭 목사(한양대병원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오경덕 목사(순복음한미음교회)의 요일 1: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목회함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



교 후에는 서기 황용식 목사(연양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이성석 목사(샘밭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서기 황용식 목사의 회원호

명, 권점식 목사의 교단·지방회 보고, 총무 성기찬 목사의 광고 순으로 이어졌다. 월례회를 마친 후에는 연양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신병설 목사)는 지난 11월 23일(월) 오전 11시 부강순복음교회(김정수 목사 사무)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유병일 목사(평강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가 요 16:33 말씀을 통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다.'라며 '첫째, 목회자가 평안이 있어야 성도들이 평안하고 목회자가 흔들림이 없어야 성도들도 흔들림이 없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가나안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김을 주신다. 인간적인 내 생각을 버려라. 셋째, 감



사하자. 감사할 때 오히려 같이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들 때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월례회로 모인 것에 감사하고 잘 극복하자'고 전했다.

이어 장성미 목사(은혜서원교회)가 드리는 예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동수 목사(환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신병설 목사(주사랑교회)의 진행으로 서기 기호선 목사의 회

원점명, 재무 김윤배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정재광 목사의 회계보고, 총무 조재호 목사의 총무보고와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본 교단의 발전과 충북 지방회 신하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김윤용 목사의 마무리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부강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부흥교회 창립17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1월 22일(주일) 순복음부흥교회(담임 서경오 목사)에서 창립17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먼저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서성령 목사(북진교회)의 찬양인도에 이어 재무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남수 목사(혈본산교회)의 기도,

정세장 목사(은혜교회)의 성경봉독, 총무 서경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빌 2:1-6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가짐(mindset)'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받아 따를 것을 당부하며, 믿음은 거짓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과 긍휼함을 가지고 섬김을 다하며, 말은바 직분을 잘 감당 할 때, 빛의 열매(엡

5:9)를 맺는 성도가 될 것이며,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말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회계 표현자 목사(새빛가에십은나 무교회)의 헌금기도와 황현지 자매의 특송 후에 2부 순서로 임직자 서약이 있었다. 서경오 목사의 인도로 서약, 안수위원의 안수식, 공포에 이어 임직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 3부 순서로 직전회장 정석현 목사(평강교회)의 권면, 증경지방회장 최병일 목사(신행제일교회)와, 증경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새빛교회)의 축사가 있은 후, 이후동장로(임직자대표)의 인사 및 광고,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벤에돔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임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한 후에 부흥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저녁 만찬을 마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이날 임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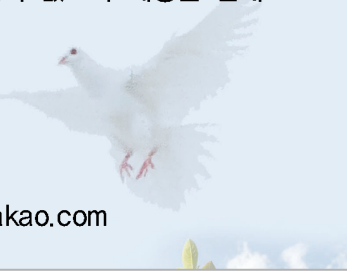
장로 이후동, 안수집사 이명성, 황윤덕, 명예권사 김번인.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통일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A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월례회 갖고 흔들림 없는 목회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신병설 목사)는 지난 11월 23일(월) 오전 11시 부강순복음교회(김정수 목사 사무)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유병일 목사(평강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가 요 16:33 말씀을 통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다.'라며 '첫째, 목회자가 평안이 있어야 성도들이 평안하고 목회자가 흔들림이 없어야 성도들도 흔들림이 없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가나안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김을 주신다. 인간적인 내 생각을 버려라. 셋째, 감



사하자. 감사할 때 오히려 같이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들 때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월례회로 모인 것에 감사하고 잘 극복하자'고 전했다.

이어 장성미 목사(은혜서원교회)가 드리는 예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동수 목사(환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신병설 목사(주사랑교회)의 진행으로 서기 기호선 목사의 회

원점명, 재무 김윤배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정재광 목사의 회계보고, 총무 조재호 목사의 총무보고와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본 교단의 발전과 충북 지방회 신하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김윤용 목사의 마무리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부강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2020 제11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 기도회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폐지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용 목사)는 지난 11월 19일(목) 오전 7시 배방읍에 소재한 택민교회(이정팔 목사, 상임 회장)에서 2020년 제11차 민족복

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함께 주어진 회원들과 임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1부 예배에는 상임회장 김수홍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본회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진 목사는 "한 해 동안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조찬기도회에 참석해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중국우한폐렴(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도 2월 기도회만 갖지 못했지만, 그 외에 매월 기도회를 기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계속적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동성애법 입법반대를 위해서 아산시민연합회와 함께 반대운동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구자범 목사(부회장)의 대표기도, 회계 박인숙 목사의 성경봉독,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사 14:24-27 말씀을 본문으로 '앗수르 파멸을 선포한 이사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패러다임을 현실에 비춰 성경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볼 수 있듯이 사람이나 잘 쓰면 나라가 살고, 잘 못쓰면 나라가 망한다며 지도자의 덕목을 강조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네로 왕의 시대를 살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말로를 생각지 않고 조언을 한 것처럼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예언과 조언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재무 정수희 목사의 헌금기도와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택민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보고회 및 공지사항 순서로 이광로 목사(지도위원)의 사회로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에게 축하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국회의원 이병수 의원(국민의힘)은 국정 현안의 문제점과 지역의 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어 아산시민족교 연합회 상임회장 황석용 목사의 연합회 행사에 적극 동참과 협조의 당부가 있었다. 이어



바른인권위원회 원장 황기식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 동참과 조직 확대에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본회 2020년 사업 결산 보고회로 총무 정진화 목사가 한 해 동안의 조찬기도회 사업과 회계보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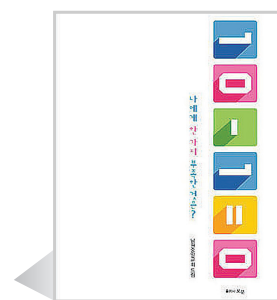
그리고 이어진 3부 기도회로 박노섭(실무회장)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주제별 순서대로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임용석 목사(상임회장), 2) 중국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하여 조이철 목사(상임회장), 3) 아가인 부흥과 연합회 위하여 박귀환 목사(상임회장), 4)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김병완 목사(상임회장), 5)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폐지를 위하여 박해서 장로(후원회), 6)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박건구 목사(지도위원)의 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총무 정진화 목사의 광고 후 사진 촬영이 있은 후 택민교회에서 준비한 장소로 이동하여 조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세번째 책'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문입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수학적으로는 9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10가지 짚었는데 하나를 실수하면 모두가 무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10-1=0입니다. 짐을 지으려면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연장과 도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차근차근 쌓아올려다 보면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잡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어느 한 과정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화복, 홍방성쇠로 인해 회로애락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택함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나 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을 살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때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명찬 짐을 지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담임목사 063)625-0690

■ 생명의 말씀 ■



강 태 진 목사

· 대구 경북지방회 중경회장
· 안동성곡교회

제가 며칠 전 어떤 상가를 방문하였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8월 이후부터 걱정이 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그때부터 쓸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권사님 곁에는 늘 전도 하시던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을 해결할 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려움의 답은 정치 여건이나 경제 여건이 더 좋아지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조금 더 좋아진다면 해 도 우리는 여전히 뭉개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다. 그래서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 마음에 넉넉한 평안함과 자유가 없습니다.

시편에는 모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 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시 90:9-11) 살아 온 삶을 돌아켜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고백은 모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돌아켜보면 우리가 살아온 그 많은 세월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식으로 살았기에 주님의 분노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맺은 인생의 열매는 슬픔과 수고만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안다면, 그 진노의 두려움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런 삶의 연장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요 전 15:1-4)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아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라셨느니라”(롬 4:25)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 들어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회개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진실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연약한 자임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3)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 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1-36)

지금 교회의 강단이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교회의 강단에서 은혜와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은혜와 진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동 정

정주채 목사, 현 정권 고강도 비판



예장 고신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가 “현 정권은 내로 남불도 이미 옛말이 되었다. 체면도 양심도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들의 그 많은 지식과 지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몸을 던지듯 했던 그들의 열정은 대관절 무엇으로 변한 것일까?”라고 말했다.

한운봉 회장 기독교교육 대상



한국장조과학회(creation.kr) 한운봉 회장이 지난 11월 25일(수) ‘2020 기독교 교육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한 회장은 “특히 이 시대는 전환된 교육과 과학주의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 창조를 변증하는 일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목사 차별금지법 비판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이 통과된 일부 나라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축제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집행위원장 배우 강신일 장로와 부집행위원장 최은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제가 기독교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예수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생명과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 일본인 모 방송인이 자발적 비혼모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발적 비혼모는 미혼모와는 다르게, 결혼하지 않았 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을 말한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하여도 이것은 또 다른 생명과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축복된 가정의 결합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도 적합한 것이 된다.

또한 아이는 의도된 것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친이 있어야 한다. 그레 야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우

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태생적 편모에게서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즉 그 남성의 질병이나 전염병,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학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때 아이에 대한 욕구 때문에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의하여 유기(遺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

이는 결코 애완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비혼모 형태를 자주 인정하다 보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은 필요하지만, 의학이 해서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시험하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소위 자발적 비혼모에 대하여 의학계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혹사라도 이를 이용하려는 정지권이나, 가족과 가정, 인간의 근본을 무너트리려는 세력들의 실험적 시도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 도덕적, 윤리적 바벨탑 쌓기는 인류에게 공멸(共滅)의 지름길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엠에스 코리아 출범과 동시에 선교사 파송

창립감사에배 드리고 세계 선교 주역 다짐

전 세계 75개국 50개 이상의 언어권에 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OMS(One Mission Society) 선교회의 한국 독립본부 가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오엠에스 코리아’(이사장 원팔연 목사)는 지난 11월 24일(화)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창립감사에배를 드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 사역을 주도할 것을 다짐했다. 특별히 오엠에스 코리아는 이날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 선교의 첫발을 뗐다.

오엠에스 코리아는 지난 120년의 역사 동안 세계 선교의 중심에서 활약해 온 OMS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 복음의 불모지에 전도, 교육, 구호 등의 사역을 감당하며, 특히 북한 선교에 중점을 두고 운영 될 예정이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원팔연 목사는 인사말 통해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교회는 순교의 피를 받아먹고 자란다”는 말 처럼, 새로운 헌신과 성령의 부흥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며 “이제 120년 오 엠에스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는 부이사장 김윤석 목사(예성 총회장의 인도로, 부이사장 고영만 장로(기성 부총회장)의 지도에 이어 박선희 목사(소망교회 원로)가 ‘성육신적 선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박 목사는 모든 선교의 모범이 되는 바울의 헌신과 개척정신을 본받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오엠에스 코리아가 될 것을 주문했다.

성명서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에 대하여



사랑제일교회 폭력이 일어난현장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교회는 지체로써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아픔을 당하면 모든 교회들이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개별이라는 명분하에 사라져 가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 장외0구역 재개발 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26일 새벽 1시 재개발조합이 보낸 용역들 수백 명에 의하여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은 목과하기 어려운 일이다.

용역들은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기와장 등을 아래에 있는 교회 주차장과 건물에 집어 던져 교회 기물들이 다 소 파손되었다. 또 중장비를 동원하여 교회 진입로에 주차한 차량들을 파손하였고, 이를 막는 교인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더군다나 화염병이 떨어져 교회 곳곳이 불에 타는 등의 모습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 동안 교회측과 조합측은 협상과 합의에 의하여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악속들을 깨고 조합측이 강제적이며, 폭력적인 명도(明渡)에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서울시가 2단계로 감염병 예방 수위를 높인 가운데, 조합측이 용역 수백 명을 현장에 투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를 기독교를 무시하고, 매우 위험한 폭력과 감염병 위반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첫째, 주택조합측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며,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것들을 신의(信義)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

둘째,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중동자들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조사를 하여,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벌을 해야 한

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경찰이 방관한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엄중한 시기에 용역 수백 명을 동원한 조합과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색출하여, 감염병 예방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라.

넷째, 정부는 기독교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하여,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자들을 찾아서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폭력적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재개발로 인하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피해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문제로 인식하며 대응하겠다.

이번에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는 한국교회를 무시한 불법·탈법·폭력 사태로 본다. 무엇보다도 조합측이 교회와의 원만한 타결보다 강제와 무력에 의한 명도 방법을 버리지 않을 때, 지난 2009년 일어났던 용산 제4구역 철거한정 화재 사건과 같은 위험성이 교조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따라서 지역 재개발을 통하여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무리하게 폭력을 행사하게 될 때, 그 불행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사랑제일교회는 이곳에 1967년 교회를 짓고, 그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교회연론회

한국교회언론회, 참된 예배를 위한 포럼 개최

예배 보장을 위한 공정성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강타하여, 11월 17일 현재,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5,502만 1,929명이 나왔고, 사망자도 132만 7,226명이나 나왔다. 우리나라도 28,998명의 확진자와 49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류, 개인 간 접촉 등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회에도 대단한 피해와 영향을 주었다. 지난 9월 한 여론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각 주요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이란 응답이 80%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기독교는 그만큼 타종교보다 신앙 활동이 활발하고, 대면예배를 통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도 크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온라인’ 혹은 ‘비대면’ 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 처음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으나, 기약 없는 비대면 예배 강요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갈 길을 잃은 측면도 있다. 거기에다 일부 교계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헌장예배 드린 것을 사과하는 등 한국교회에는 예배의 문제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이 9개월간 지속되는 가운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11월 17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참된 예배와 한국교회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포럼은 한국교회언론회 신임 12대 대표로 지난 달 취임한 이억주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최성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COVID)19는 지난날 자유로웠던 모든 생활이 위축되고 위험하고 불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사랑한 사람보다 그로 인한 공포와 우울증으로 괴로움을 겪

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였다.

또한 “교회에서도 생명과 같은 예배와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크게 위축되고, 영적인 충전소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당 출입도 제한되는 상당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세우며,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장복 교수(전 장신대 신대원장, 전 한일장신대 총장)는 “지금의 신본주의가 힘을 잃고 인간 위주의 삶의 철학과 양상이 솟아올라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도처에서 예배당이 문을 닫았다”고 분석해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우등생을 찾으시는데, 올바른 예배를 위한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응답 행위이다. 두 번째, 예배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실현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을 기억하라(요4:22)

셋째, 예배의 내용과 절차를 변형(약속된 예배 장소, 시간, 말씀에 의한 방법, 교회의 전통)시키는 것을 함부로 시도하지 말라. 그라야 예배에 탈선이 없고, 교회의 전통과 맥을 지키게 된다. 넷째, 예배당의 성단(聖壇)은 지성소를 뿌리에 두고 있는데, 함부로 무대 개념으로 바뀌서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다섯째, 예배는 성심위임체 되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드려야 하며, 최첨단의 영상매체들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예배를 수행하는 사람은 경건과 정성으로 준

비하고, 맑은 영성에 흠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 우등생이 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덟째, 집회와 예배는 구분해야 한다. 아무데서나 기도와 찬송만 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홉째, 예배를 위하여 섬세하게 준비하라. 열째, 코로나19가 ‘온라인 예배’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무너뜨렸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목회적 관점에서 발표에 나선 박정곤 목사(영남 고원교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본인이 경남지역 기독교 연합회장으로서, 경남 지역에 도지사의 ‘교회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도지사를 만나 이에 따른 어려움을 진심으로 토로하므로, 경남도가 융통성 있는 행정지침으로 바뀌서 경남도내 교회들이 예배를 지속하도록 한 사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에서는 법과 행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하여,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는 드리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처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목디온’된 상태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학교와 유치원을 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식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고 쓰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 언론의 관점에서 토론자로 나선 송영민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기독교의 특색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기독교(개신교)는 가톨릭처럼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타 교단이나 타 교회를

대신하여 사과하는 등의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예배의 자유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는 내적으로는 신앙의 자유이면서 외적으로는 예배의 자유인데, 예배의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는 완전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를 강요당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하였다.

네 번째, 의사로서 토론에 나선 이명진 원장(성산 생명윤리연구소 소장, 명예비인후과 원장)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조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관공서와 직장에서는 매일 계속 근무를 하고, 지하철과 대중교통은 전혀 통제하지 않으면서, 1주일에 한두 번 모여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객관적 금지 근거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런데도 기독교단 록 적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공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예배는 성도들의 영혼에 산소와 같다. 교회의 단헌 문은 주님이 닫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닫은 것이다. 성경에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의 자세를 찾아야 한다”고 지도자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포럼에서 이억주 목사는 모두(冒頭) 발언을 통해 “교회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의 소위 ‘정치방역’을 너무나 쉽게 음인하게 된 것에 대한 성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후에도 With-COVID19 혹은 Post-COVID19 시대에 한국교회의 예배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신학의 정립이 확실하고도 시급한 시점이다.

포커스

제성호 교수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충신교회 장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④

○차별금지법 제정 시 신학대학교 미션스쿨, 한국교회 내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 개교회 안에서 각종 예배와 채플, 성경공부 모임 진행 시 창세기 제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레위기 20장, 로마서 1:27 등을 근거로 하여 동성애를 반대(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마귀적·적그리스도적·반성경적이다, 성령을 거스른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다 등등)하는 내용의 반동성애에 설교 및 교육에 상당한 제약 불가

- 그러한 교육은 동성애 혐오적이고 성평등에 반하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차별금지법 위반을 구성

- 즉 정신적 고통(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4호)을 주는 것은 물론, 교육내용의 차별(동 법안 제32조)과 함께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동 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 이와는 반대로 동성애를 포함한 각종의 성적 지향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용인된다고 교육해야 하며, 신학대학교 교수는 이를 뒷받침, 정당화하는 신학적 논리(“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라, 그저 성적 지향이 특별한 것”을 개발해야 하는 압박(7)에 직면할 것

- 신학자, 목사 또는 평신도가 동성애에 대한 정통적 신학 내지 성경해석론을 버리고 다른 성경동 이론을 억지로 개발하도록 강요된단다면, 혹은 그러한 이론을 수용하도록 강요된다면, 이는 ‘신앙의 자유(기독교적 교리·신념 고수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

※ 나아가 이는 기독교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

○이 밖에도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통합·고신) 총회가 동성애자 목사 자격을 부인하는 현행 교회법규나 그러한 해석론을 변경하지 않거나 신학 노회가 동성애자 목사 청원 및 안수를 거부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 대대

- 정로교 교단의 헌법 및 관행에 의하면, 동성애자(목사 포함)나 동성애 용호자를 처리(장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혹은 관련 피해자 제보나 진술 등 법률상의 요건 충족시) ‘불이익조치’에 해당(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 동성애자 등의 처리 금지는 종교의 자유, 특히 ‘교회법 제정·실시의 자유’, ‘교리 해석의 자율권’ 등을 침해하는 것

● 장혜영 의원안 제30조(단체 등의 운영에서의 차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는 성별등을 이유로 단체 등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구상원 자격을 제한·박탈하는 등 단체 등의 가입·활동·이익 공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단체

2-5. 생략

⇒ 장로교 헌법(장혜영 의원안 제30조의 ‘정관’에 해당)에서는 구성원, 특히 목사의 자격을 제한(예장 통합 정로교 총회 헌법 제26조 제1항은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를 명시하고 있고, 동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2항은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일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동성애자 등의 목사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성애자 목사 청원이나 안수를 거부할 경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될 가능성 농후

⇒ 차별금지법 제정 시 동성애자 등의 목사 안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들의 세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러한 현상은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권사·안수집사(교회의 직원을 구성)에게도 해당될 것인 바 차별금지법 제정 시 시간이 분제일 뿐 결국에는 동성애자의 장로·권사·안수집사 피택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

- 만일 당회에서 항존직 안수를 거부한 경우에 피해나 관련 사실을 제보하거나 언론과 인터넷을 피택자에 대해 불이익조치(출교 등)를 취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

- 특정 교회 내에 동성애자 장로가 등장할 경우, 그 교회는 전자 올바른 신앙과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전자 분열·약화·해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② 표현·양심·학문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안 제2조 제7호는 ‘괴롭힘’ 유형의 하나로서 벌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제시

- 동성애 반대 발언 및 입장 표명 또는 그러한 내용의 홍보 전단지 배포, 각종 행사에서의 동성애 비판·반대의 의사표시 및 이러한 취지의 연구발표(세미나·공청회·캠페인 등의 활동)는 모두 ‘혐오적 표현’의 범주 안에 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 시 기독교 성직자, 신학대학교 교수는 물론, 교회 내 항존직(장로·권사·안수집사)과 일반 신자들이 ①이성애를 제외한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편하하거나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발언할 경우, ② 그러한 취지의 시문이나 사설을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단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 ③ 그러한 취지의 주장 등을 담은 내용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게재할 경우,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동성애 등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 내지 ‘불리한 대우의 표시’를 구성

- 이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입을 봉쇄하는 결과로서 언론의 자유, 특히 의사 표현 및 전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

※ 반동성애에 표현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도 침해하게 될 것인 바, 이 같은 인권 침해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관례다. 특정항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지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국민일보』 2020.7.20. 기사)

○또한 동성애 반대 취지의 길거리 설교·전도 현수막·전광판 게시, 피켓팅은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언론사는 물론 방송사(TV, 라디오), 인터넷TV, 인터넷 신문이 동성애 반대 취지의 설교나 프로그램을 방영·송출·게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독교 언론·방송사의 보도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유 침해

- 예컨대, 기독교 언론사나 극동방송 등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 또는 성경 말씀에 반하는 죄’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나 방송을 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을 구성

※ 이는 정신적 고통(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4호)을 주는 것은 물론, 방송서비스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동 법안 제29조)과 함께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동 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

⇒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복음적인 기독교 언론사나 방송사는 점차 사라지고 동성애자의 구미에 맞는 내용만 보도·방송하는 언론·방송사만 살아남게 될 소지

○개교회가 인터넷, 유튜브, SNS 등에 반동성애 설교를 올릴 경우, 차별금지법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4호)은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동 법안 제28조)을 이루며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동 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

- 이는 신앙적·복음적 선포 및 선교 활동에 제약가능성

○이 밖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육내 회의·모임과 육외 집회를 개최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중국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결사체설립’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라”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 포럼’ 수료식 개최

코로나19의 도전 가운데 공간 위주의 오프라인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로, 주일 교회에서 주중 교회로, 메가(Mega) 교회에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메타(Meta) 교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더불어 ‘미래에는 어떤 형태의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한국교회총연합에서는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책임질 3040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서로 연합하는 매개체 역할을 위한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 포럼’을 진행하고 11월 24일(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한국교회 각 교단에서 추천을 받은 젊은 목회자 50명으로 시작한 제1기 포럼은 원래 오프라인으로 속박을 함께 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수료식만 진행했다.

앞선 진행 된 강의는 ① 코로나19, 다음세대 예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해정 교수 / 감신대 예배학) ② 포스트 코로나19, 예배의 회복

(최병락 목사 / 강남중앙침례교회) ③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세상 (남윤재 변호사 / 크레도 대표, 범무법인 산지) ④ 데이터로 보는 미래교회 (지윤근 대표 / 목회데이터연구소) ⑤ 통일한국시대 교회의 미래 (하광민 교수 / 총신대 북한선교회) ⑥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역사와 과제 (변창배 목사 / 예장통합 사무총장)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있었고 포럼 참가자들은 수강 후 과제를 제출했다.

수료식에서 말씀을 전한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 포럼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신자와 매시자를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교회는 교단과 출신과 배경을 넘어서 공유하고 협력하며 격려하는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교총은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수료식 참가자들에게는 수료패와 한교총 배지, 이코백 등과 후원받은 12종의 서적 등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이 제공됐으며 추후 활동을 위해 참가자 중 50인을 선정해 임무를 맡겼다. 행사관련 자료는 한교총 홈페이지(wccok.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③ 기독교 성직자의 목회활동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성직자의 설교권 및 목회활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범주 내에 드는 것이지만, 차별금지법이 특히 성직자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따로 구분해서 설명

○모든 기독교 성직자는 각종의 예배 중 또는 교회 내외에서의 기독교 관련 모임에서 동성애 반대의 설교나 강의는 차별금지법 위반

- 또한 동성애자가 교육 및 문답을 통해 세례를 받길 원할 경우, 결혼 주례를 요청할 경우, 동성애자도 장로·권사·안수집사로 피택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을 구성

○아울러 개별 교회의 목사는 교회에 침투한 ‘동성애 신자’들로부터 자신의 발언과 행위를 묵취·감시당하는 속박과 제약 속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 대분

- 이는 사생활의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을 의미

○앞으로 설교자는 설교 내용이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검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

- 성적 문제에 관한 설교는 원칙적으로 기피할 가능성 대대

※ 자기검열의 분야는 비단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23가지 영역(사유)에 모두 해당

(4) 교회 직원 채용시 교회의 자율권 침해

○교회 직원 채용 시 면접과정에서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할 경우 이는 차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의 대상

- 양벌규정의 적용가능성도 존재

※ 전술한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안은 ‘교용의 영역’에서 성적 지향과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

담임목사 청빙 공고

남원중앙교회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직속 지방회 소속으로 창립 68주년 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섬겨오신 담임목사님의 사임에 따라 소명의식이 뚜렷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담임목사님을 청빙 하고자 합니다.

1. 지원자격

- 1) 연령 : 만40세 이상~52세 이하(생년월일 1969. 1. 1. ~ 1981. 12. 31.)
- 2) 학력 : 하나님의성회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
- 3) 경력 : 하나님의성회 교단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자(담임 또는 부목사)
- 4) 기타 : 대한민국 국적의 기혼자로 교단법과 사회법에 무한한 자

2. 전형방법

- 제출된 서류와 동영상을 통한 1차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추후 초청 설교를 통하여 최종결정.
- 초청 설교와 관련하여 시간과 방법은 개별통지함.

3. 제출서류

- 지원서(경력사항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본인파와 배우자: 성정배경, 가족사항, 신앙관, 목회경험장점사항과 은사 및 약한부분 포함) 등)
- 목회계획서(목회 동기와 철학, 비전, 교회운영계획,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계획, 바람직한 교회상 등)
- 설교 동영상 : 지정설교(마태복음 13:1-9절 말씀), 자유설교 각 1편, 제한시간 30분 이내(저장매체:USB), 설교원고 출력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목사안수 증명서 및 교단 소속증명서
- 하나님의성회 총회 신학대학원 학위(졸업) 증명서

- 건강진단서(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지정병원 발행)
- 현재 시무교회 재직증명서 및 최근 4주간 주보
- 성범죄 및 범죄(아동학대 포함) 전력 조회 동의서
-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 그대로 사용

4. 제출기한

2021년 1월 15일(금)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5. 제출처

(55771)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85(죽향동) 남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위원회

6. 참고사항

- 1)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 제출(결면에 '청빙서류 재증' 표기)
- 제출서류는 가급적 한글 표기(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2) 모든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청빙 결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연락처 : 남원중앙교회 청빙위원회(010-5656-6022, 010-9966-2071)
- ※교회 홈페이지: <http://www.nwcc.co.kr>

남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호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회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혁 목사, 김병완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권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서기 최순식 목사 회계 박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정수희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박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한상문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상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도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후원계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타식폴린은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폴린(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볼 때(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 문의 |

교단공과 신청

출판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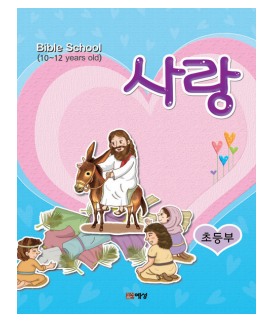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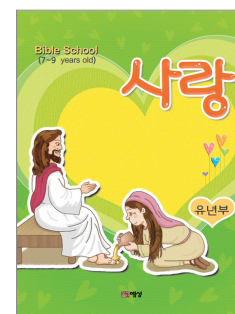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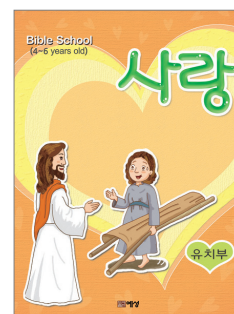
- ① Fax :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농협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은혜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정부는 교회에 대한 감시, 무시, 탄압 멈춰야”

언론협회 ‘제18회 기독교언론포럼’, 정부의 예배제재 비판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예배제재가 매우 불합리하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회장 문병원 국장)은 지난 11월 30일(월)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8회 기독교언론포럼을 열고,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대응이 종교자유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와 한국교회의 대응·예배회복의 긴급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 임성택 박사(KC대학교 전 총장), 이일호 박사(살롱나비 사무총장), 김준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 등이 발제자로 나서, 예배와 관련한 사건 및 정황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예배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형원 장로의 사회, 윤광식 장로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문병원 회장의 인사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인사를 전한 회장 문병원 국장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는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의 특권으로 어떤 법률이나 권력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이 특권을 빼앗을 수 없다”며 “정부는 방역을 방치해 교회 예배를 일방적으로 금지시켰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김남식 박사 “교회 침체 극복 위해 예배 회복해야”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친 김남식 박사는 먼저 예배의 근본적 이해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놓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제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며 “기독교 예배는 계시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 중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선취 행위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가 수반된다”며 “예배는 인간의 참여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섬기의 열정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전제에서 한국교회의 침체를 회복키 위해 반드시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한국교회는 최근 통계에서 꾸준히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감소세가 더 커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이를 극복키 위해 바른 예배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임성택 박사 “온라인교회 고착화,성경적 교회 붕괴”
임성택 박사는 코로나 시대 속 대체로 자리잡은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교회 고착화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임 박사는 먼저 비대면 예배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에 대해 무지의 오류라며 “예배는 ‘공간’이 아닌 ‘모임’을 지칭하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 모임의 질점이 예전적 예배”고 정의했다.

하나 성도들의 걱정을 염려하는 코로나 방역의 순수성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는 객관적인 입장도 보였다. 임 박사는 “이는 교리적 논쟁이 아닌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 논쟁이며, 현실적으로 매우 정당한 방역 전문가의 주장이다”며 “사회는 결사적으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교회는 방역당국의 순수한 간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 교회의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는 사회에 대면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신앙적 이유를 간절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시기에 자칫 비대면 예배가 정당화 되어, 온라인교회가 고착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강력한 우려도 제기했다. 먼저 임 박사는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 확립되는 순간부터 대면예배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하나 분명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주장에 동조하는 교회와 신학자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온라인에 기반한 초대형교회의 등장도 예고했다. 임 박사는 “기반시설이 미약한 힘 많은 작은 교회들의 붕괴로 흡수된, 그리고 스스로 비대면 예배를 택한 무적 교인들을 끌어 모은 초대형교회의 등장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무적 교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몇 안되는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초대형교회로 성장키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와 예배의 개편조차 간단히 바뀔 것이고, 교회는 마침내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일호 박사 “종교 전체에 대한 행정명령, 마지

선총독부의 포고령”
김준오 목사 “정부 유독 기독교에 대한 감시 강화, 종교 갈등 야기”

정부의 과도한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일호 박사와 김준오 목사가 연이어 발제를 진행했다. 특히 이 박사는 사랑제일교회 발 대규모 확산 사태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1개체가 일으킨 물의를 개선교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했으며, 신천지 확산사태 당시 종교 전체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도 “조선총독부 포고령 같은 협박의 무게를 더한다”며 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준오 목사도 “정부는 유독 기독교에만 감시를 강화했다.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로, 정부가 어느 한쪽을 두둔하거나 또는 차별화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곧바로 종교 갈등이 생겨난다”고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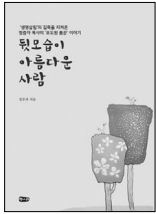
여기에 “한국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적 ‘방역장지’가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마치 교회를 코로나의 근원지로 몰아 일방적으로 ‘해배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 교회를 감시하는 행위는 교회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외에도 이일호 박사는 정부와 대화를 하는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는 것은 역사적, 국가적 위기를 직면한 현 시점에 성경적 자세라 보기 어렵다”며 “방역장지로 국민의 기본권, 신앙과 양심의 자유,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는 추상같은 호령으로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국교회గా 되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공동

신간 안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 책은 의료인과 목회자로서 생애 대부분을 ‘생명살림’의 길목에서 보내온 정중자 목사의 자전적 신앙 에세이다. 1946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십대 때부터 작가가 되는 꿈을 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는 달랐다. 저자의 70년이 라는 시간 속에는 6.25 전후 대한민국의 시대상과 저자의 고단했던 결혼생활 그리고 목회여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하나님은 어린 정중자를 당산의 자녀로 부르셨고, 간호사와 목사로 세우셨다. 그의 오늘은 말쑥하며 인내와 눈물로 교회공동체를 섬겨온 낙타 무릎이 빚어낸 활자풍이다. 신앙이 인내 없이 쫓구는 허상이 아님을 자신의 치열했던 삶을 들추며 조용한 어조로 들려준다. 정 목사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기를 소망한다.

저자 : 정중자 | 출판사 : 빛나래 | 227면 | 판매가 | 14,000원

키워드로 풀어가는 청년사역



2005년 첫 출간되어 청년사역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키워드로 풀어가는 청년사역》의 2020년 확대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사역의 필요성이 갑자기 앞당겨진 현실에서 청년사역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 어려운 위지는 청년 현실과 청년 인구 감소, 청년이 부족하고 문화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지방 교회에서는 특히 청년사역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 방법이 필요하다. 우선순위와 실행 방법이 없다면 청년사역의 구체적 각목에서 당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청년사역에 큰 타격을 안겼다. 안전을 추구하면서 청년사역을 안정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서 앞으로도 청년사역자들에게 유용한 매뉴얼이 될 것이다.

저자 : 양형주 | 출판사 : 홍성사
발행일 : 2020-11-13 | (145*210)mm 240p | 판매가 : 13,000원

애들아, 아빠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부모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헤아리자는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생생하게 깨달을 특권,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믿음을 내 언어로 자녀에게 전할 특권이 있다. 코로나 시대, 교회의 대면 예배도 멈춰 서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때야말로 진정한 가정 교육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절호의 기회다. 자녀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어차피 교회학교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잘 것’을 준비해야 한다. 부모가 경건하고 신실하게 준비해야 자녀에게 건강한 영적 양식을 먹여 키워며 든든한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다.

저자 : 이무현, 칼리 늘샘 권자인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0-11-30 | (132*210)mm 256p | 판매가 : 14,000원

2021 예배와 설교 핸드북



1. 목회자가 알아야 할 2020년의 회고와 2021년의 전망 2. 본서의 자랑거리인 2021년도 예배 자료 - 예배로 부름, 예배 기원, 이 주일의 찬송, 성서 교육, 고백의 기도, 사함의 확신 수록 3. 예배를 위한 지침 - 예배 우등생이 되고 싶다. 4. 바른 설교 사역을 위한 지침 - 설교자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勸勉)의 항목들 5. 52주당 예배 설교 지침 - 성서절과에 따른 설교의 핵심에 대한 형태 제시 - 본문 접근(본문의 재장정, 본문 개관, 본문 - 분석, 본문의 신학), 평행 본문, 설교를 위한 적용(오늘에 적용, 설교 개요, 설교를 위한 회화) - 다양한 설교 형태 제시 - 대지, 이야기, 전개식, 이야기식, 네 페이지, 분석, 귀납적, 강해 설교 8. 매주일 영상 예배 자료 제공 - 파워포인트로 작업된 영상 예배 자료를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홈페이지 (www.wpa.or.kr)’를 통해 제공

저자 : 정창복 외 2인 | 출판사 : 예배와설교아카데미
발행일 : 2020-11-10 | (152*225)mm 836p | 판매가 : 39,800원

긴급진단

이은경 변호사 //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 ④

‘정의당’은 “성적지향”이란 ‘이성에,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하고,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별”을 새로 정의하는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고,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란 개념의 모호성도 큰 문제다. 그런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규정이 나타나듯이 ‘감정적, 호의적, 이질된, 개인의 가능성, 인식 혹은 표현, 인지 등’은 모두 주관적, 내면적,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첫째, 주관적인 개인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적용이 모호해지는 차별적 약점이 있다. 둘째, 개념이 포섭하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감정적·호의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는 관계도 “성적지향”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성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조차도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또한, ‘분류할 수 없는 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대체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법은 명확해야 한다.

이렇듯, 차별사유 중 포괄제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표지’를 갖추지 못한 것들은 손쉽게 악용될 수 있다. “성별” 중 ‘제3의 성’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개념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료를 통해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기 위해 성소수자 등을 지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암암리에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숨겨진 것들이 밝혀지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여 고

용, 배지, 승진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사용자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에, 동성애, 양성애 등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득불 우대부터 할 수밖에 없는 어이 없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이는 “성별” 중 ‘제3의 성’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구별표지의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17)

사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틀리다’ (it’s wrong), ‘다르다’ (it’s different), ‘옳다’ (it’s right)로 나눌 수 있다.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표현의 자유(제21조)는 이를 ‘틀리다’ (it’s wrong)라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중간 영역인 ‘다름’을 뛰어넘어 곧바로 ‘옳음’의 영역으로 이들을 옮겨놓으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비판, 종교적 논의의 시도 자체를 ‘틀림’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도덕, 윤리, 종교의 영역까지 실정법으로 정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추어 뜯어고쳐질 수 없다. 차별사유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행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초래하는 건 아닐까?

물론, ‘인권위’는 ‘이 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목사 등 성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거나 거리에서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를 묻는 질문에 ‘종교계 일부에서 전도를 그러한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위’가 제시한 시안은 고용, 처우·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당’이든 ‘인권위’이든 차별금지영역은 무척 광범위하고 규정도 예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어디 간다하든 답변할 일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교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봉사단체는 고용, 주거시설

의 매매 또는 임대, 회원 가입에 있어서 동일 종교로 제한을 할 수 있고, 동일 종교 또는 교단의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며, 종교적 교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식의 차별금지외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과 ‘인권위’는 말로는 ‘설교나 전도를 차별하지 않는다,

격정 말다’고 하면서 실상은 기독교를 오로지 예배당 안에서만 가둬 놓으려 한다. 당장 종교선전(교포), 종교 교육,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0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기관이라도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용을 배제할 수 없고, 해고 등도 불가능하다. 모든 종립학교나 신학교는 간학이념에 반하는 학생의 입학·편입을 제한할 없고, 추후 전학과 퇴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이미 ‘인권위’는 다지성에 관련 강연 강의를 대관 거부에 관한 한동대 케이스, 동성애 홍보 행사 막기 시 및 동성애 영화제 장소 대관의 불허에 관한 숭실대 케이스에서 모두 시정권고를 했다. 모든 종교들을 동등한 전리로 간주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신천지의 포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선생의 권고는 그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제소되고, 학교에서의 신우회 활동에 대한 교사의 참여는 금지되고 있다.

“언어”는 국어능력의 향상과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추진하는 법령(국어기본법 등)과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국적”은 헌법이 외국인을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본제(제6조 제2항)를 극복해야 할 것이므로, 과연 차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토론했어야 한다.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이 혼인, 혈연, 입양을 토대로 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외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인 ‘가구’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동거커뮤니티 가족과 동일하게 보호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특히 “고용형태”는 ‘정의당’과 ‘인권위’ 모두 비

정규직 차별이 만연한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사유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조약과 해외 입법례 그 어느 곳에서도 “고용형태”란 차별별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당’은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그 밖에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시정, 법령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차별예방 등 차별시정 의무가 있고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정부의 5년 단위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 지자체장,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량의 여지가 없는 ‘하여야 한다’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인권위’의 개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수립하고,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 시정도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는 시행계획의 이행결과 제출 요구권도 있다. 법률기관에 불과한 ‘인권위’를 헌법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최상위 국가기구로 격상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③ 차별금지 및 예외조치

‘고용’, ‘처우·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4가지로 항목을 나누어 ‘차별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모집·채용, 임금·급료 지급,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용, 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이용, 상업·공공시설, 토지·주거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이용 등 ‘처우·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를 명시했다고 한다. 한편,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 교육 기회 및 교육내용 등 차별행위를,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에서 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서비스 이용, 수사·처단 절차·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차별금지 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영역 거의 전부를 ‘차별영역’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금지로 못 막은 차별행위들이 대부분 시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다. 계약의 자유를 비롯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론화’를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 ‘고용’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상시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업장의 해고를 제한한다. 정당이나 종교단체 같이 특정의 사상·이념이나 신앙을 공유·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사업’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정의당’은 지정기부금 기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물론, 심지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정당’의 운영까지 ‘차별영역’으로 본다. 시설물의 접근·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종교시설의 신천지 등 이단종파 출입허용 여부”,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전용시설(화장실 포함) 사용여부” 등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낳고 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의 차별금지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언론이나 방송사들이 이단종파, 타 종교 등을 옹호하는 광고 게재 등을 거절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외계층 겨울나기

“코로나로 더 혹독해진 겨울, ‘희망의 온도’를 함께 올려주세요”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2020 희망온’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런 캠페인은 본격적인 추위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전국 1,000여 취약계층 가정과 30개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방한용품 지원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캠페인 모금은 기아대책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2만원 후원 시에는 한 가정이 1주일간 사용 가능한 연탄을 지원할 수 있다.

기아대책은 지난 2003년부터 소외계층 겨울나기 ‘희망온’ 캠페인을 시작해 지금까지 매년 평균 2,500여 가정과 50개 시설에 대한 난방비와 주거 개보수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596가정과 48개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전달하는 등 총 5억 1700여만 원의 규모의 지원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위기 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12월 본격 지원에 앞서 세밀한 수혜대상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대책 강경환 국내사업본부장은 “지금도 비닐 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 가정 등 만기 힘든



정도로 심각한 에너지빈곤 가정이 수혜 대상 발굴 과정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약자에게 더 혹독해진 겨울이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함께 희망온도를 높여 추위를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문기관 발표에 따르면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돋는 마을, 사랑의 쌀전달식

대흥동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서울시 마포구(유동근 청장)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의 일환으로 대흥동주민자치센터(동장 백명진)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연우)는 지난 11월 19일(목) 오후 2시 마포구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신생명나무교회목사) 엘트드노인대학(학장 최에스디 교수)을 방문해 소외되고 어려운 쪽방촌과 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백명진 동장은 “어렵고 힘든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해돋는 마을을 통해 따뜻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고, 이연우 자치위원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독거어르신들께 급식을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후원회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쪽방촌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섬겨온 (사)해돋는마을 이사장 장현일 박사는 “대흥동 결식 어르신 제로운동을 대흥동과 주민 자치위와 함께 하는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쪽방촌과 독거어르신분들을 위한 정성이 가득한 사랑의 쌀과 함께 격려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백명진 동장, 이연우 위원장, 장현일 목사, 박정원 복지팀장, 고혜숙 복지2팀장, 김용래 복지주관, 최세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가족세트전도로 무장하고

가족세트 전도를 수요일마다 몇 주 진행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전도 원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기쁨부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로 예배와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할 수 있을 때 무장하고 사역을 펼쳐야 하는데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전 9:14)

사람을 만나고, 축복 기도들을 해주고, 예수님 영접기도를 하며,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먼저 전도자가 뜨거워지고, 설교에 자신감과 권능의 기쁨부음이 부여된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사역자 훈련을 받았지만 특히 6개월간 수요일마다 가족세트 전도훈련을 받은 것이 도움이 되었다. 6교회가 연합하여 매주 전도하는 전도팀을 조직하게 되었

고, 여기저기 회원교회들을 위해 서로서로 전도하면서 교회들이 힘을 얻고, 개인적으로는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던 부모님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평생에 숙제를 해결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주님께 감사하다.

수요일마다 참여하다보면 누구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세 번 참여하고 빨리 그만두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 한 번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가족세트전도 훈련으로 함께 무장하고 힘있는 능력전도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새영광교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라길9, 2층)

조성문 목사 010-7582-1691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생명나눔’, 132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임실교회, 교회설립 100주년 기념 생명나눔 예배 드려

임실교회(담임목사 송희종)는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생명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기도로 하나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임실교회는 지난 11월 8일과 11월 15일 2주일에 걸쳐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이 생명나눔 예배 참여가 저조한 시기에도 지난 11월 8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 본부장 문병호 목사를 초청해 1, 2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장기기증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날 문 목사의 설교를 전해들은 성도 132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큰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11월 15일 교회 창립 100주년 감사예배에는 임실군수 및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

했고, 132명의 성도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서 전달식도 진행되었다. 1920년 10월 5일 설립된 임실교회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뿐 아니라 그동안 임실 지역의 복음화와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도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송희종 담임목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임실교회”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생명나눔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며,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따라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생명나눔운동 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100주년을 기념하며 생명나눔 약속에 많은 성도들이 뜻을 함께해준 임실교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줄어들고 있는 한겨울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앞장서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는 뜻을 전했다.

201명 어린이가 전하는 평화의 노래

월드비전, ‘온택트 합창 프로젝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월드비전 합창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해외 3개국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한 온택트 합창 프로젝트 ‘There is Peace’ 영상을 공개했다.

한국 월드비전 합창단과 그리스, 독일, 홍콩 어린이 합창단이 참여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온택트 합창 프로젝트 ‘There is Peace(바로 이곳에 평화가 있네)’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인들을 위로하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평화의 염원을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월드비전 합창단 김보미 상임지휘자는 “지금은 서로 얼굴을 보며 연주하고 노래할 수는 없지만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시원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영상은 각기 다른 공간에서 노래한 후, 영상과 음원을 믹싱하는 비추얼 코어(비데면 합창)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한국 월드비전 합창단 38명과 그리스 합창단 55명, 독일 합창단 80명, 홍콩 합창단 30명 등 총 4개국 201명의 어린이가 이번 온택트 합창에 참여했다. 영상이 공개된 11월 20일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어린이의 날’로, 세계 어린이들이 한목소리로 평화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며 “아이들의 염원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상대방 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제3회 예정총연, 제22회 예정연 정기총회 개최

차별금지법 반대, 방역정치로 교회탄압 적극대응
이탈자들의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안정적 연합활동 펼쳐



이광용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11월 20일(금)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2층 무이시기념관에서 제3회 예정총연, 제22회 예정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말

씀으로 새롭게 새로운 한 회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정총연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회원교단이 연합하여 더욱 활발한 연합활동과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응,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방역을 빌미로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정

부에 강력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상임회장 변권능 목사의 사회, 예정합동통신 총회장 원동인 목사의 대표기도, 본회 총무 지광식 목사의 성경봉독, 예정보수합동연합방상교회 회원들의 특송, 본회 고문 예영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 목사는 막 3:13-15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 됨의 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며 임마누엘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예정총연



이 이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문 송기호 목사, 김원식 목사, 육옥수 목사의 축사, 기독교발전협의회 이종택 목사의 축사, 고문 엄정호 목사의 격려사, 특별기도로 ‘국가와 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자 된의 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며 임마누엘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예정총연

이후한 목사, 맹훈길 목사, 오선미 목사, 김수영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지문 민철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도로 총회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예정총연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이광용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아울러 이광용 목사는 코로나19를 무기

삼아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 다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이 땅에 구현해 내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이탈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동안 단호히 대처하여 사)예정총연은 대표자 이광용 목사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법인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Before the Wrath’ 개봉

예수는, 살아있는 역사다!



감독 : 브렌트 밀러 주니어
내레이션 : 케빈 소보
주연 : 선 알다란, 잭힐스, JD 파락
수입배급 (재)CBS
전체관람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심판, 두려움, 멸망이 아닌 사랑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두려움,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마 24:11)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의 두려운 이미지를 악용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제시한다. 예수님이 ‘언제(When)’ 다시 오시는지 몰두하는 흐름 속에서 그가 ‘왜(Why)’ 다시 오시는지, 그 이유에 집중하게 한다. 이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신앙이신 예수님이 신부 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마치 결혼식 전 신부를 예뻐하게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처럼, 우리와 다시 만날 날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다.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열 처녀 비유에서 기쁨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잔치에 가지 못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 사랑하는 신랑과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심판’임을 강조한다. 즉, 사랑으로 에타는 마음으로 온 신랑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맞이할 심판이라고 전한다.

재림에 대해 성경 중심 해석과 새로운 시각을 통해 점점 높아져 가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국내 극장가에 11월, 찾아온다.

예수는, 역사다!
역사 곳곳에 숨겨진 증거를 통해 또 한번 확증하는 예수는, 살아있는 역사다!
살아 있는 예수를 또 한번 증거하는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기존의 기록 영



화와 달리, 역사 속에서 숨겨져 있던 예수의 존재와 재림에 대한 확증을 선포하고 의미가 남다르다. 영화를 제작한 인제뉴어티 필름(INGENUITY Film)은 우연히 찾게 된 증거들을 통해 예수는 역사 속에 존재하며, 특정한 문화와 풍습을 통해 제지를 가르치며 자신의 비밀을 전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요한계시록과 묵시론, 종말론에 정통하며 작가, 설교자, 교수인 고대 중동 인류학자 제이 맥칼

(Jay McCall), 미국에서 강해 설교로 저명한 캘리포니아 갈보리 교회 원로목사 잭 힐스(Jack Hibbs), 기록 신앙을 기반으로 한 통계회사 라이프웨이(Lifeway)의 이사인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미국에서 가장 큰 성경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북미에 800개가 넘는 방송국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올리브트리 미니스트리(Olivetree Ministry)의 대표 전 마르켈(Jan Markell) 등 대가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명불허전! 연기력과 진정성 있는 보이스를 가진 배우

장광 내레이션 참여!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도가니>, <신세계> 등 굵고 깊은 연기를 통해 관객을 사로잡는 배우 장광이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내레이션에 참여해 화제다. 그는 KBS 15기 공채 성우 출신으로 ‘거리 울드민’ 전담 성우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트롤>, <슈렉>, <라이온킹> 등 장르를 불문하고 인지도 높은 영화 더빙에 자신의 연기를 녹여내는 탄탄한 실력을 지닌 배우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원작을 사로잡는 특유의 목소리와 안정감’에 대중은 매료되며 이른바 ‘목직한 존재감’이라는 평가를 받는 배우다.

이어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앙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영화 속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깊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el : 070-4191-005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찢어진 휘장 길 (1)

찢어진 휘장 길을 걸어갑니다.
죄악된 것들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곳
빛으로 비추시고 보혈로 씻어주사
언제나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길입니다.
새로움이 계속되는 신비로운 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찢어진 휘장길에 대해 묻고 싶으신
가요?
그 길은 십자가의 보혈로 주께서 내신
영생의 길 영원까지 찾아드는 길입니다.
간절함의 영혼들이 찾아드는 바로 그 길 끝엔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이 계십니다.

끝이 보이는 산 소망길

숨을 쉬면 성령의 생명바람이 나를 새롭게 만드느 곳
태초의 사랑이 내 영혼을 이루만지는 길 입니다.
찢어진 그 길은 깨어짐이 아름답게
상처가 훈장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길입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 그 생명길로
주님 주신 의에 옷 입고 걸어오는 나를 향해
두팔벌려 맞이하는 주님이 보입니다.
내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경건의 시간에
막 15:38 말씀을 묵상하다

성남시의회, 사랑의 장기기증 협약식 진행

“성남시의회가 생명나눔의 정신을 이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지난 11월 20일(금)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4층 세미나실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협약식’을 개최했다. 특히 협약식과 함께 지난 9월,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故 서정민 군의 유가족에게 기립패를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생명을 살리고 떠난 천사 아기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20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본부 박진탁 이사장, 故 서정민 군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먼저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과 박진탁 이사장이 사랑의 장기기증 협약서를 작성하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장기기증 협약’의 주된 내용은 생명나눔 운동 공동추진, 장기기증을 실천한 시민을 위한 99공원(기증) 조성 추진, 성남시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및 실제 기증자 현황 연 1회 공유, 관내 기관 및 단체 구성원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 독려 등이다. 박진탁 이사장은 “아름다운 생명나눔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신 장기기증인과 유가족들을 위해 성남시의회에서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협약을 체결한 후 술선 수염으로 12명의 성남시의원들이 현장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생명나눔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날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12개월 된 아기 故 서정민 군의 부모에게 생명나눔의 뜻을 기리는 기립패를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기립패를 전달받은 故 서정민 군의 어머니 이나라 씨는 “정민이가 나눠 준 그 사랑을 잊지 말아 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윤창근 의장은 “故 서정민 군의 장기기증은 우리 사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전해주었다.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 등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성남시의회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사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우리가 이론 자유 민주주의가 그냥 이뤄진 게 아니다. 수많은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속에서 피운 꽃이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뒤엎는다는 것은 환상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했다.

조국은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국회에서 말했다. 우리 사회가 사회민주주의로 바뀌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로 바뀌까? 민주당 대표는 중국 공산당과 더 친해지겠다고 했는데...우리나라에 2박3일간 방문한 중국 서열 20위 밖에 안 되는 사람 왕이 외교부장 앞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더 친해지겠다고...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소름끼치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런 미국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까? 학자들은 현 정권은 운동권 정권이라고 말한다. 운동권의 주류는 NL(민족 해방계열)이었다. 이른바 주체사상과. 개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운운하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도 있다.

같은 나라 전(前)정권 사람들을 사냥하듯 털고 털어 징역 함께 100년 이상을 때리면서 북한 정권의 온갖 만행은 다 덮고 변호하는 NL 운동권 출신들. 김정인이 베트남까지 66시간 열차를 타고 간 이상한 행동에 대해 ‘탁월한 판단과 선택, 역사에서의 사열’이라고 칭와대 한 비서관이 말했다. 민주당 중진들은 ‘북한 주민은 부러움 없이 살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 사람 처지에서 북한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김일성과 공모해 625남침을 일으켰다는 말에는 침묵모드다. 북한 핵은 미국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며 북한이 남한에 핵을 쓸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꿀 수 있나?

전대협1기 의장 출신인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고쳐 교회도 바꾸겠다고 했다. 히틀러도 못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회를 한 인간의 힘으로 바꾸겠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말이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려 든다. 환상에 불과하다.

‘감염병 법률안’ 종교 율죄는 수단 안 된다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용은 사립이 교회회를 염두에 두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와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 외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율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방지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는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은 가해자들의 목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하여 관장하고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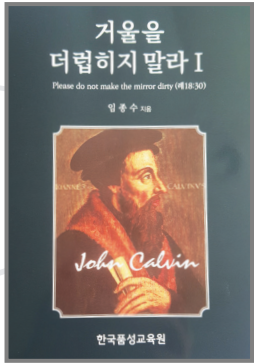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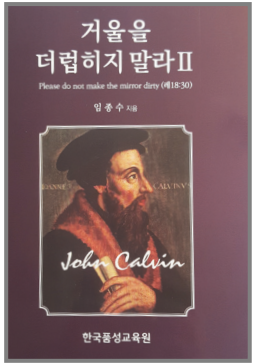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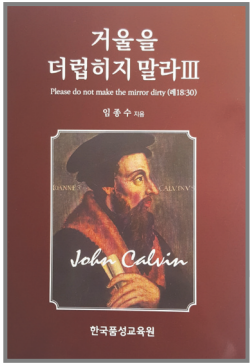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꿀 수 없는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 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